



2026년 2월 1일 | 주현후제4주

자녀 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요한일서3:18)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사랑과 나눔의 BCJC
균등과 균형의 교육 가치를 추구하는 다림교육

기독교대한감리회 아름다운 주님의교회 공동사역자 김영석 김진형 김효정 신주환 오미숙 이학재 한창천

목장을 섬기는 목자 | 박정수 신주환 오세현 이상숙 최경찬



2026 아름다운 주님의교회 주일공동체 예배

흘려보낼 때 더 크게 채워집니다.

2026.2.1.

BCJC 소식

환영합니다 |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공동체 가족들을 한 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실 성령님의 임재와 나눔 가운데 함께하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합니다.

연합 및 성찬예배안내 | 오늘은 공동체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이 자리에 주님의 일치와 사랑, 연합과 조화의 영이 우리 공동체 모든 영혼 위에 임하길 기도합니다. 아울러 성찬을 통해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결단을 우리에게 주시길 기도합니다.

공동체 식사안내 | 오늘 공동체 식사는 삶은목장에서 준비해 주십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귀한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나눔이 식탁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길 믿습니다.

축복의 말씀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 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잠언서 11:24~25

공동체 연합예배

모든 세대가 주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주의 능력 있는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시편 146:4

목장모임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교회모임실

매일묵상

매일 오전 5시

성찬주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흘러보낼 때 더 크게 채워집니다.

사도행전 9:26~31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목장나눔

나눔1. 살면서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나누어 주었을 때, 오히려 내 마음이 더 풍성해지거나 예상치 못한 평안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청소년용 나눔 : 혹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을 친구나 동생이 달라고 했을 때 아까워서 갈등해 본 적이 있어? 그럴 때 쿨하게 주는 편이야?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 편이야? 안되는 이유가 있다면 한번 이야기 해볼래?)

나눔2. 여러분에게 낭비는 어떤 것들 인가요? 또 투자는 어떤 것이죠? 여러분의 낭비와 투자에 대한 정의를 나눠 보세요. 그리고 예루살렘교회의 나눔을 여러분으로 눈으로 보실 때 어디에 속하는지 나눠보시죠.

(청소년용 나눔 : 내가 가진 것을 털어서 친구나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 준

적이 있어?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봐.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기억나니? 혹시 나중에 반대로 내가 도움을 받았던 일도 있어? 있다면 그때 이것은 내가 한 나눔이 되 돌아 왔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어? 너의 경험을 이야기해 줘.)

나눔3. 경제는 흘러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은 잘 쓰시나요? 어떻게 쓰시나요? 아깝게 쓰시나요? 돈은 가뭇두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해야 증식된다는 사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보세요.

(청소년용 나눔 : 저축은 잘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라는 말을 들어봤어? 무작정 돈을 쌓아두는 것이 저축이 아니라 쓸데없는데에 쓰지 않고 꼭 필요한데 잘 쓰는 것이 저축이라는 말이지. 돈을 잘 쓰면 사람도 얻고 관계도 얻고 지평도 넓어지니까. 그게 진정한 저축이라는 의미야. 이 말이 어떻게 들려? 너의 생각을 나눠 줘.)

나눔4. 결핍마인드에 대해 나눴습니다. 예로, 우리는 이 돈이 없으면 다시는 돈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돈을 쓰지 못하거나 나누지 못한다는 거죠. 그 결핍마인드는 결국 나의 인생을 늘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마인드는 어떠신가요?

(청소년용 나눔 : '나는 해도 안 될 거야. 나는 시험을 못 볼 거야. 이번 시험도 망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 있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늘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없니? 이걸 결핍마인드라고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는 늘 안 되는 일, 걱정되는 일, 문제되는 일만 만나게 되는데. 너희는 어때?)

나눔5. 이번에는 풍요마인드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시죠. 내가 좋은 마음으로 주는 만큼 나에게 채워진다는 마음이죠. 내가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말이 돌아오고, 내가 감사를 하면 감사한 일들이 더 생긴다는 마인드죠. 그런 마음이라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게 긍정적인 마음이고 믿음이며 감사와 기쁨이라면 어떨까요? 헌금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인드의 문제라면, 그래서 늘 아까운 마음으로는 수역을 내도 소용이 없고, 단 렵돈 두둑이어도 풍요마인드로 낸다면 몇 배의 열매로 돌아온다는 것이 창조의 원리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깊이있게 나눠보세요. 오늘 우리의 미래 풍요가 결정될지도 모릅니다.

(청소년용 나눔 : 진짜 잘 되고 싶다면 풍요마인드를 장착해야 한데. 실패해도 '이건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야'라고 생각하는 것,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이것으로 나는 조금더 성숙해 질거야' 하는 거죠. 내것을 내어주어도 '나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질 거야'하는 믿음이 나를 잘 되게 한다는 거야. 너희는 어때? 이런 마음이 너희에게도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싶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나눔6.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오늘 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내가 결단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청소년용 나눔 :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배운 점은 뭐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말할래?)